

[보도자료]

이 자료는 **2011년 8월 11일(목)**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올림픽과 여성 - 김연아의 언니들을 찾아서 -

- 2011년 현재 여성 IOC 위원 비율 17.7%, 그 중 한국 여성은 0명
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배포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배포 날짜 : 2011년 8월 11일(목)

언론 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

(연락처: 02- 3156- 7296 / 이메일: aeri2008@kwdimail.re.kr)

자료관련 문의 : 전기택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장

(연락처: 02- 3156- 717 8/ 이메일: junkt@kwdimail.re.kr)

[제1면: 기획보도자료]

※ 이 자료는 2011년 8월 11일(목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에 있으며, 사후
인식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념 기획보도자료

올림픽과 여성
- 김연아의 언니들을 찾아서 -

2011. 8. 11.

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념 기획보도자료

올림픽과 여성

- 김연아의 언니들을 찾아서 -

기획·작성: 전기택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장

동계연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 연구원

분야 : 성 인지 통계

기획·작성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장 (02-3156-7178)
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판부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 연구원
동 계 연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 연구원

분 배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과를 통해 (02-3156-7296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 성인지통계·패널센터(<http://gsis.kwdi.re.kr>)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<올림픽과 여성 - 김연아의 언니들을 찾아서 ->를 주제로 「KWDI 성인지통계리포트」를 발간하였다. 이번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에 참여하는 여성 선수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, 임원이나 감독 등으로 참여하는 여성 수는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 본 자료에 나타난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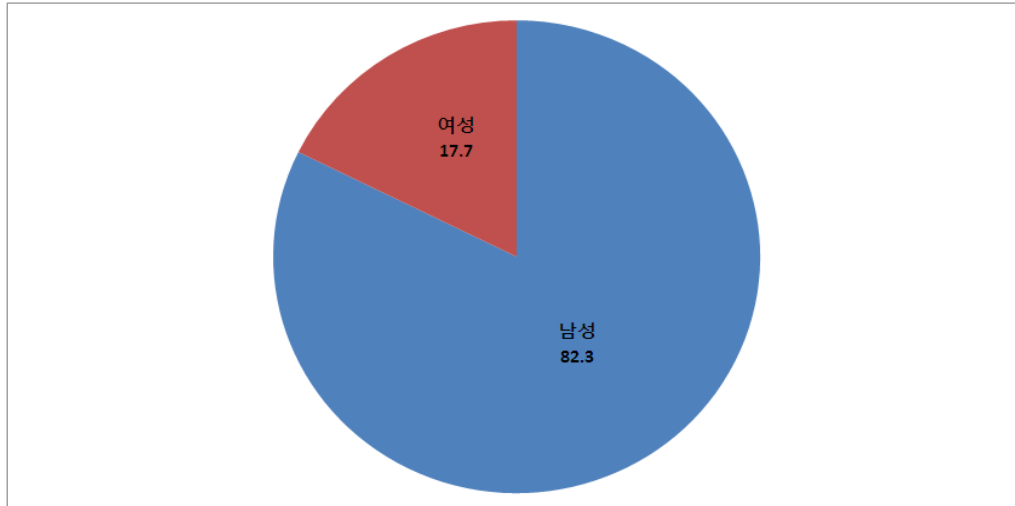
2011년 현재 여성 IOC 위원 가운데 한국 여성은 0명

□ 여성 IOC 위원 비율 17.7%

- 1894년 IOC 창립 이후, 87년만에 처음으로 여성 IOC 위원이 선출됨.
 - 1981년에 베네수엘라의 플로르 폰세카(Flor Isava Fonseca)와 핀란드의 피르조 헤그만(Pirjo Häggman)이 최초의 여성 IOC 위원으로 선출됨.
 - 2011년까지 여성 IOC 위원은 총 30명이 선출됨.
- 2011년 현재 IOC 위원 113명 중에 20명의 여성 IOC 위원이 활동 중임. IOC 위원 중 여성 비율은 17.7%에 불과. 28명의 IOC 명예위원 중 여성은 4명으로 14.3%.
 - 연도별 여성 IOC 위원 선출 현황은 <부표 6>을 참조.

<그림 12> 2011년 IOC 위원의 성별 비율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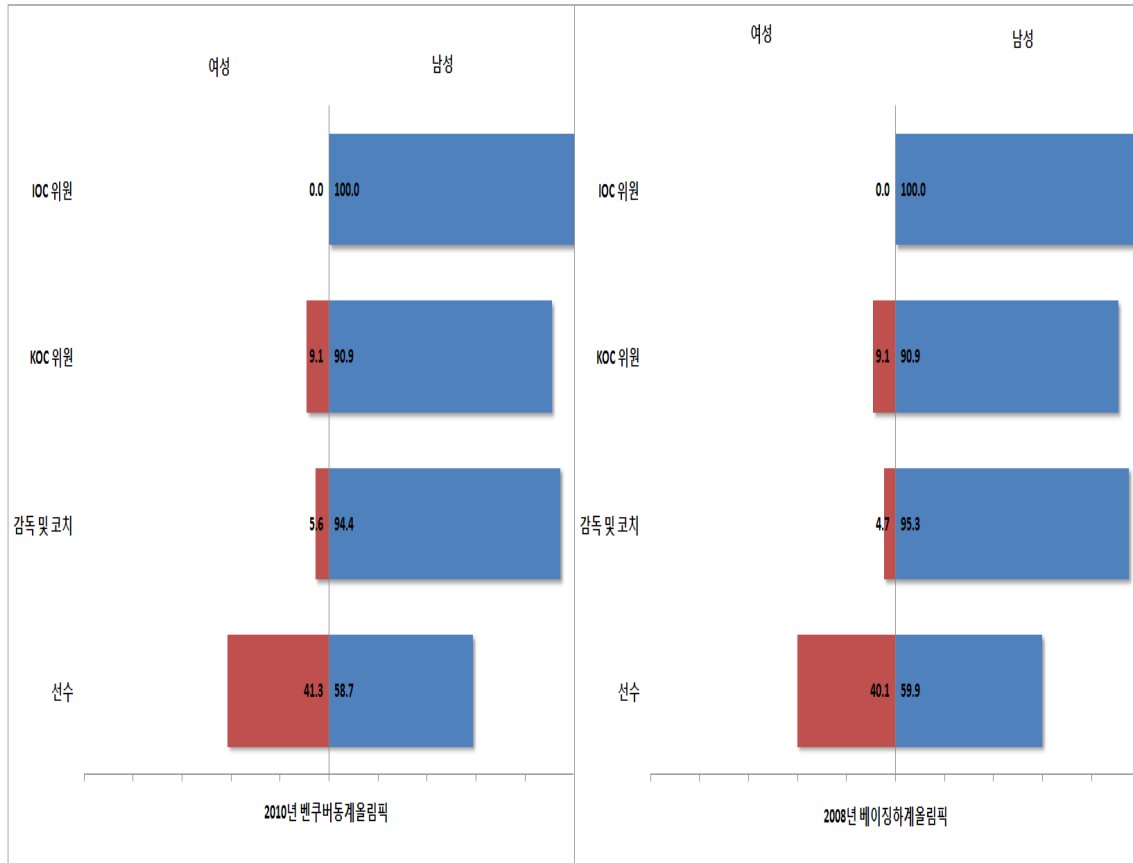


□ 한국 출신 여성 IOC 위원은 없으며, 대한올림픽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9.1%에 그쳐

- 한국에서는 1955년 첫 IOC 위원을 배출한 이래, 2011년 현재까지 9명의 IOC 위원을 배출함. 한국에서 여성 IOC 위원은 선출되지 않았으며, 현재 1996년에 선출된 이건희 위원과 2008년에 선출된 문대성 선수위원이 활동 중임.
- 한국에는 제27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구성되어 총 22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임 (2009년~현재). 이 중 여성위원은 권윤방(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회장), 정현숙(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) 위원 2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9.1%임.
-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종목별 임원 구성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,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본부임원 19명은 모두 남성이며, 본부임원을 제외하고 종목별 감독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종목임원 중 여성은 피겨스케이팅의 정재은 코치 1명으로, 종목임원 중 여성 비율은 5.6%에 불과함. 본부임원까지 포함했을 때의 여성 비율은 더 낮아져 전체의 2.7%로 나타남(<부표 7> 참조).

-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종목별 임원 구성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,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본부임원 36명 중 여성은 22.2%인 8명임. 또한 본부임원을 제외하고 종목별 감독 등으로 구성된 86명의 종목임원 중 여성은 승마의 신수진 코치, 리듬체조의 김지희, 유도 이복희, 탁구의 현정화 감독 등 총 4명으로 종목임원 중 여성 비율은 4.7%, 본부임원까지 포함했을 때의 여성 비율은 9.8%임(<부표 8> 참조).
-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중 여성선수 비율은 41.3%로 남성의 58.7%에 비해 낮음. 이러한 격차는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감독 및 코치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더욱 큼. 남성 감독 및 코치의 비율은 94.4%인데 비해, 여성 감독 및 코치의 비율은 5.6%에 불과함(<그림 13>, <부표 9> 참조).
-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중 여성선수 비율은 40.1%로 남성의 59.9%에 비해 낮음. 이러한 격차는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에 참가한 감독 및 코치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더욱 큼. 남성 감독 및 코치의 비율은 95.3%인데 비해, 여성 감독 및 코치의 비율은 4.7%임(<그림 13>, <부표 10> 참조).
- 2011년 현재 대한올림픽위원회(KOC) 위원 중 남성위원은 90.9%인데 비해, 여성위원의 비율은 9.1%로 낮음.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에서 활동 중인 한국 위원은 총 2명으로 모두 남성임. 2011년 현재 IOC 한국 여성위원은 0.0%임.

<그림 13> 한국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및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의 여성참여비율
(단위 : %)



□ 한편,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·패널센터에서는 성인지통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방대한 국내·외 성인지통계 DB를 구축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분기별 여성고용 동향 자료 등 다양한 성인지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 1.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념 기획보도자료 전체파일

한국여성정책연구원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구 한국여성개발원)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,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-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,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,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.

보도자료 끝.